

# 영광군 출산정책 효과... 지난해 합계출산율 2.54명 '전국 1위'

### 결혼~육아 맞춤형 서비스... 인구정책실 신설 등 저출산 극복 행정력 집중

영광군이 2019년 합계출산율 전국 1위에 올랐다. 결혼부터 육아까지 단계별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광'의 위상을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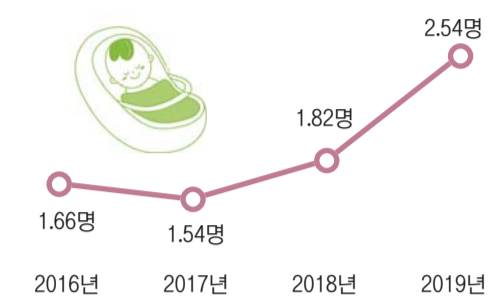
1일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합계출산율을 보면 영광군이 2.54명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는 7년 연속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했던 해남군(1.89명)보다 0.65명이 더 많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영광군은 최근까지 저출산으로 합계출산율이 2016년 1.66명, 2017년 1.54명에 그쳤다. 그러나 지속적인 출산 장려 정책과 육아 지원에 힘입어 2018년 출산율이 1.82명으로 뛰어오른 데 이어 올해 전국 1위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국의 출생아 수와 결혼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영광군은 올 7월 말까지 335명의 출생아 수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명이 증가했다.

■ 영광군 합계출산율 추이



이 같은 출산율에 힘입어 7월 말 현재 영광군 인구는 5만3440명으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앞질렀다.

그동안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어온 영광군은 2019년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인구·일자리 정책실'을 신설하고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영광군은 결혼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결혼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돕고 있다.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에게 9



영광군이 2019년 합계출산율 전국 1위에 올랐다. 결혼부터 육아까지 단계별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광'의 위상을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만 원(남성)·17만 원(여성)을 준다. 출산 이후에는 30만 원 상당의 축하용품과 산모의 이동을 돕는 30만 원의 교통카드도 지급한다.

양육비는 첫째 아이 5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다섯째 3000만 원, 여섯째 아이부터 3500만 원을 지원한다. 난임 부부 시술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하고 정관·난관 복원 수술비 전액을 지급하는 등 출산 전 단계부터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임신부를 위한 도서배달 대출 서비스를 비롯해 가족 행복여행, 육아공동 나눔터 등 영광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만 82종에 이른다.

지역 내 육아지원시설도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다. 2015년에 분만 산부인과를 유치하고 공립 산후조리원을 설립해 광주 등으로의 원정출산 부담을 해소했다. 사설 유치원 4곳을 국공립으로 전환했다. 내년 말에는 24시간 아이를 돌보는 육아통합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영광군은 육아통합지원센터를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아우르는 거점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아이를 키우는 기반시설을 크게 늘리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든 것이 출생률을 높이는 효과를 냈다"며 "출산을 제고와 함께 폭넓고 다양한 인구·청년·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 목포~제주 대형크루즈 카페리 29일 취항

### 씨월드고속훼리 '퀸 제누비아'

### 2만7000t급 1300명 승선

### 분수대·영화관·편의시설 등 다양

목포와 제주 항로에 대형 크루즈형 카페리가 오는 29일 취항한다.

현대미포조선소에서 새로 건조한 이 카페리는 지난 31일 '퀸 제누비아'로 명명됐다.

이 카페리는 길이 170m, 너비 26m, 높이 20m, 국제톤수 2만7391t 규모로 1300여명의 여객과 480여대의 차량(승용차 기준)을 싣고 최고 24노트의 속력으로 운항할 수 있다.

개인 생활이 보호되는 고급스러운 객실 등 감각적인 공간을 선보이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선사 측은 설명했다.

메인 로비에 대형 아트리움, 아고라 분수대, 오픈 테라스를 비롯한 국내 유일의 해상영화관, 펫 플레이룸, 사회적 교통약자를 배려한 선내 이동용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이 구비됐다.

운항 중 다양한 편의시설(고급바, 레스토랑, 편의점, 카페, 노래방, 오락실, 마사지라운지, 갤러리 존 등)을 이용하면서 항로 상에 펼쳐진 대형 파노라마식 오션뷰(Ocean View)는 고객 마음을 사로잡을 만하다.

이혁영 씨월드고속훼리 회장은 "퀸 제누비아는 씨월드만의 철학과 신념을 담기 위해 시간과 비용



씨월드고속훼리는 지난 31일 현대미포조선소에서 목포~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크루즈형 카페리 '퀸 제누비아' 명명식을 했다. (씨월드고속훼리 제공)

을 아끼지 않은 뛰어난 작품"이라며 "명품 카페리선으로 풍요로운 해상여행환경을 구축해 새로운 기준과 가치를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무엇보다도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씨월드만의 의지표명으로 배를 새로 짓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7일 울산 현대미포조선으로부터 인도해 21일 취항식을 열고 29일 새벽 1시 목포-제주 항로 첫 취항에 나선다.

목포-제주 기점 항로를 운항하는 국내 최고의 연안여객선사 씨월드고속훼리사는 이날 현대미포조

선소에서 크루즈형 카페리 명명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코로나19의 확산 우려로 선주사(씨월드고속훼리)와 현대미포조선 등 주요 관계자만 참석했으며, 이혁영 회장의 부인 고연자 씨가 대모(代母, Lady Sponsor) 역할을 수행했다.

2018년 9월 정부에서 추진하는 현대화편드를 통해 현대미포조선으로부터 건조한 이 선박은 제주로 가는 바닷길을 누비는 아름답고 멋진 카페리라는 의미의 '퀸 제누비아'로 명명됐다.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명을 공모, 고객들의 의견이 반영된 특별한 씨월드만의 선명을 확정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무안군, 1801억 투입 '무안형 뉴딜사업' 46건 확정

무안군이 국비 889억원 등 총사업비 1801억원을 투입해 무안형 뉴딜사업을 펼친다.

1일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두차례의 보고회를 통해 총 91개 사업을 발굴했으며 실행 가능성이 높고 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 등 한국판 뉴딜 3대 정책과 전남도 대응계획과 연계되는 전략사업 46건을 최종으로 확정했다.

무안형 뉴딜사업은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구축, 재해위험지구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가상현실(VR) 전시 훈련장 조성 등 디지털 뉴딜 사업 20건 ▲모두누리 숲 조성, 생활밀착형 숲 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확대 등 그린 뉴딜사업 21건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양성과 취약계층

일자리 프로젝트 등 안전망 강화사업 5건이다.

특히 디지털 인재양성과 ICT기반 창작공간 조성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조성사업을 디지털 뉴딜 대표사업으로 추진해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녹색 생태계 조성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모두누리 숲 조성사업을 그린 뉴딜 대표사업으로 선정해 도심 녹지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김산 무안군수는 "디지털과 그린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는 현실에서 현 상황을 지역 내 일자리와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삼아 기초인프라 발굴과 투자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 세일골

## "범죄·사고·질병·재해로부터 주민안전 확보 최선"

### 임옥성 영광경찰서장

"범죄·사고·질병·재난재해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주민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제83대 영광경찰서서장으로 임옥성(50) 총경이 취임했다. 임 옥성 서장은 "코로나19와 장마·폭염 등 어려운 치안여건 속에서도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주민안전 확보에 경찰력을 집

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암 출신인 임 옥성 서장은 조대부고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간부후보(45기)로 경찰에 임문해 경찰청 사이버스사과 수사기획계장, 서울청 교통지도부 치안지

도관, 전남청 과학수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